

# 순천 '숙의민주주의'로 시민과 정책 소통 중



시민들이 원탁테이블에 앉아 자유롭게 대화하며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순천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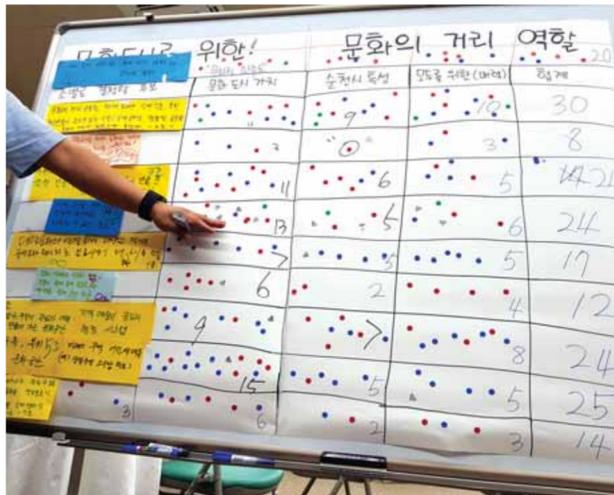
일자리·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9개 공감정책 시민 대토론회 자유롭게 대화하며 합의 도출 정책 제안·반영에 반응 좋아

순천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스스로 토론하고 투표해 정책을 결정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대화하며 결론을 도출해내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9개 공감정책...시민들 머리 맞대=순천에는 지난달부터 다양한 주제의 시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기존 발표형 토론회와는 사뭇 다르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숙의(熟議)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인 중시되는 토론회다. 9개 주제별로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참여하고 싶은 토론회를 찾아다니느라 시민들도 바빠졌다.

시민들은 토론회를 통해 주제별로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고르고 합의로 선택,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토론회는 처음이지만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순천시는 앞서 부서별 토론회를 거쳐 시



'공감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그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

민들이 토론회를 9개 주제를 제안했다. 이른바 '9개 공감정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순천형 좋은 일자리 ▲순천형 출산장려 정책 ▲사람중심 교통문화 ▲문화의 거리 활성화, 문화도시 ▲정원산업 활성화 ▲지역농산물 품목 다양화 생산방안 ▲시민 안심 맑은물 공급방안 ▲시민행복기초선 선정 등이다.

◇시민들, 숙의민주주의로 소통=9개 주제별 토론회는 지난달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3일 열렸던 미세먼지 저감대책 토론회는 원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형태로 실시됐다. 미세먼지의 원인, 국내외 피해 상황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끝나면 테이블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다 스티커 투표로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1차 토론을 거쳐 55개의 제안이 나왔고 중복 의견을 제외한 12개로 압축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참가한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7% ▲노후 가정용 보일러 청소비 지원 15% ▲시민의식 교육 13%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11% ▲물류유통차량 공회전 금지 11% ▲페비닐 소각 단속 강화 10% 등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순천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도 잇따랐다. 시민들은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은퇴자들을 위한 제 2의 직업 선택, 일과 가정에서 양립 가능한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세 차례나 열렸다. 주제가 광범위하고 문화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다.

순천시는 부서별로 수렴한 시민들의 정책을 오는 9월 7일 열리는 '2018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 제출하고 합리성·실현가능성·예산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은 정책 발굴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제안한 정책을 뜻대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도 긍정적이다.

순천시는 시청사 건립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순천시 청사'라는 주제로 건립방향, 공간(시설), 건축형태, 기존청사 활용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미래는

내달 13·14일 포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반려동물 문화 및 반려동물 산업화 가능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순천시는 9월 13일부터 이틀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포럼'을 연다.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축제인 제 5회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맞춰 열리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진다.

포럼은 '반려동물산업 트렌드 이해 및 육성'과 '반려동물산업의 트렌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에는 '시민이 행복한 반려 서비스산업 육성', '반

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펫푸드의 오늘과 내일', '책임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란?',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과 동물'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튿날에는 '반려동물매개치료의 이해와 전망', '치료도우미견 선발과 육성',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과 운영사례'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포럼이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미술도구·음악 결합 연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순천기적의도서관 내달 9일

미술도구와 음악 연주 등을 결합한 어린이 문화공연이 열린다.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연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미술도구와 물건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전하는 물체 놀이극 형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이야기꾼과

물체놀이, 실시간 음악연주라는 요소가 결합,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을 요소가 가득하다. 제 23회 서울어린이연극상 4개 부문(작품상, 최고 인기상, 음악상, 여자연기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생활 속 소품이 들려주는 마법의 시간, 이야기꾼과 물건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문의 061-749-8890.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에너지의 날' 맞아 스마트에너지 페스티벌 개최

순천시는 제 14회 에너지의 날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4시 순천시 버드내공원에서 스마트에너지 페스티벌을 열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교육지원청, 그린순천21 등 1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에너지

자립도시 순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를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 대학생 제로에너지 경연대회가 열리며 천연 모기기피제와 손부채 만들기, 에너지절약 약속하기 등 체험 행사가 열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